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1. 11. 16.(화) 14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작성과	영종청라계획과
담당	과장 강영훈, 용유무의계획팀장 우창식, 담당 강진우(032-453-7592)

“내년 1월 을왕산 IFUS HILL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한 최종 점검 완료”

인천경제청, ‘을왕산 IFUS HILL 개발사업’ 추진 보고회 개최

산업부 컨설팅 제시 주요 지적사항 보완 마무리...영상전문기업 참여 등 체크

-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‘을왕산 IFUS HILL’ 사업과 관련해 내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인 가운데 이를 위한 최종 점검 보고회가 열렸다.
- 인천경제청은 16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이원재 청장을 비롯 을왕산 IFUS HILL 사업시행 예정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을왕산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최종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.
- 보고회에서는 △사업시행 능력 강화를 위한 인천경제청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△사업 실효성 향상을 위한 영상전문기업 참여 △주요 방송제작센터와 양해각서(MOU) 체결 계획 △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및 외국인 직접투자(FDI) 신고 계획 등 보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.
- 이에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에서 선정되지 않은 이후 산업부 컨설팅에서 제시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했다.

- 을왕산 IFUS HILL 개발 사업은 인천경제청과 SG산업개발(주)를 공동 시행자로 중구 을왕동 산 77-4번지 일대 80만7,733m² 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영상산업단지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.
- 을왕산 사업 부지는 최근 한류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국내 방송제작자 및 영상콘텐츠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울과 40분내 거리 등 입지적 우수성과 총 24만평 대규모 부지의 확장성 측면에서 영상제작클러스터 최적지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산업부와 협의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돼 왔다.
- 그러나 국내 주요 방송국 영상제작센터 유치와 연말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FDI 신고를 위한 투자단 입국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영상전문기업 참여 등 사업 분위기가 전환됨에 따라 산업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다.
-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“이번 보고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1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산업부에 정식 신청할 계획”이라며 “한류영상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고려할 때 영상전문 제작기반 확충 및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을왕산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